

# 팔영대교 명칭 사수... 고흥군민 뚝뚝 뭉쳤다

11개 다리중 고흥 관련 유일  
4만명 서명·탄원서 정부 전달  
상경 투쟁 등 모든 수단 동원  
군민대책위·전국 향우회 성명서

고흥지역민들이 팔영대교 명칭사수를 위해 전국 향우회까지 나서는 등 힘을 결집하고 있다.

팔영대교 명칭 사수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위원장 신태군)와 전국고흥향우회(대표 류동신) 18명은 지난 12일 고흥 라이온스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군민대책위원회와 전국고흥향우회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통해 “팔영대교와 관련해 최근 발생한 명칭협의 등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명칭 조정을 하고 싶으면 여수시와 관련한 명칭이 붙은 10개 다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정치권은 이번 다리명칭과 관련해 더 이상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팔영대교 명칭의 관철을 위해 고흥지역 기관단체와 전국의 향우들은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력한



팔영대교 명칭 사수를 위한 군민대책위원회와 전국고흥향우회들은 최근 고흥 라이온스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의지를 밝혔다. 군민대책위원회와 전국고흥향우회는 이어 “연륙교 명칭 재심의 일정이 구체화되면 관련 기관을 제차 방문해 ‘팔영대교’의 당위성과 군민의 뜻을 강력히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팔영대교 명칭과 관련해 4만403명의 군민 서명부와 탄원서를 국무총리실과 국토지리정보원,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전남도 등 5개 기관을 방문·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6월 22일 국가지명위원회가 여수시와의 11개 연륙·연도교 중 유일하게 고흥군의 명칭을 부여한

‘팔영대교’에 대해 자치단체간 논란 등을 이유로 부결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게 고흥지역민의 설명이다.

팔영대교는 지난 4월 29일 전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팔영대교로 심의결정 했으나, 지난 6월22일 국가지명위원회에서 고흥과 여수시 등 양자치단체간 분쟁이 있어 협의 후 재심의하라는 사유로 부결처리되면서 지역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고흥~여수간 해상교량 11개 중 10개는 여수지명으로, 유일하게 고흥을 상징하는 지명이 들어간 ‘팔영대교’(고흥

영남면~여수 적금도 잇는 총 길이 1340m)라는 명칭은 지난 2004년 교량건설을 시작하면서 조기 결정했다는 점에서 고흥지역민에게 다가오는 상실감이 더욱 크다.

당시 전남도에서 명칭제안을 요청받은 고흥군은 군민공모를 통해 고흥의 명산인 팔영산의 이름을 딴 ‘팔영대교’로 정했고, 이후 팔영대교라는 명칭은 전남도와 고흥군은 물론 여수시도 사용해 왔다.

전남도지명위원회도 고흥 팔영산이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명산으로 상징성이 높아 국민이 쉽게 교량 위치를 추측할 수 있다며 팔영대교라는 명칭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교량명칭은 섬 이름으로 정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를 들어 ‘적금대교’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 고흥지역민 반발 등을 의식해 여수와 고흥을 합친 ‘여흥대교’나 ‘팔영·적금대교’로 하자며 한 발짝 물러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군 군민대책 위원장은 15일 “여수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물론 수많은 고흥 향우들이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가까운 자치단체이며, 그동안 고흥군민들은 형제의 도시로도 여겨왔다”면서 “다리명칭 하나를 놓고 반목과 갈등이 발생한 점에 우려를 표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수시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 고흥군 농업기술센터

### 연중 토양검정 무료서비스

고흥군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경지 토양검정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토양검정은 논과 밭의 산도, 유기물, 질소, 인산, 칼륨, 토양개량제(구산, 석회고토) 등을 분석해 결과에 따라 작목별 적정 비료량을 산출하는 것으로 건강한 토양에서 고품질의 작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를 원하는 관내 농업인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토양을 직접 채취해 농업기술센터 내 토양종합검정실을 방문하면 된다.

토양 검정 후 비료처방까지 2주 정도 소요되며, 비료 추천량과 토양분석 결과가 기록된 처방서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농업인이 직접 토양종합검정실을 방문하게 되면 작목 및 토양관리에 대한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토양종합검정실(061-830-6834)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구례향교 전통예절 교실 구례군은 최근 구례향교에서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절 교실을 운영했다. 학생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와 향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사자소학과 명심보감 강독, 국궁 다도체험, 절예절 교육, 전통놀이 등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구례=이성규기자 lsg@

## 보성군 내년 예산편성 군민의견 수렴

17일~9월 22일 투자방향 등 홈페이지 설문조사

보성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지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로 했다.

보성군은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2017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군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과 재정 운용방향에 대한 의견 등을 묻는 것으로 진행된다.

설문조사 참여는 보성군청 홈페이지(www.boseong.go.kr) 팝업존 자세히 보기 클릭 후 설문참여 또는 ‘참여마당-군민참여-설문조사-설문참여’를 차례로 클릭해 응답하면 된다.

군은 오는 9월에는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보성군은 이번 설문조사와 설명회를 통해 접수된 의견들을 소관부서의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보성군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균형 역점시책과 주민숙원사업 등 지역발전제에 우선 투자하고, 재원낭비 요인을 사전 예방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역점시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별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착공

내년 12월까지 150억 들여 상가 49동 등 신축

보성군이 별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에 나선다.

15일 보성군에 따르면 최근 별교 전통시장 부지 내에서 관내 기관단체장과 입점 상인,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착공식을 가졌다.

내년 12월 완공 예정인 별교 전통시장은 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2만4904㎡의 부지에 상가 49동(3582㎡),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1461㎡, 광장 및 주차장, 아케이드 등 현대식 건축물이 들어선다.

군은 지역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전통시장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이다. 별교 전통시장은 지난 1964년 개장이

후 지역 거점 유통시설로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시설 노후화와 지역의 인구 감소, 대형할인점 중심의 유통환경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던 중 지난 2014년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사업 대상지로 별교시장이 선정되는 성과를 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보성군민의 애환이 서린 삶의 터전이자 소통의 광장인 별교 전통시장이 모두가 편안하게 즐겨 찾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별교=김윤성기자 kim0686@

## 제14대 보성문화원장에 김현진씨 선출

제14대 보성문화원장에 김현진(67) 보성문화원 감사가 당선됐다.

김현진 신임 원장은 최근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유효투표 539표 중 273표를 얻어 14대 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김 원장은 다음달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원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 원장은 “내 집같이 편안한 문화원,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문화가족의 행복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원, 문화예술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



통해 생동감 넘치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이뤄내겠다”면서 “특히 지역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성문화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발전계획을 세워 정진해 나가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토지, 6000평

## 투자 가치 확신합니다!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30-47번지의 13필지 / 담양댐 하류 바로 옆
- 관광특구로 관광자금 유치 가능
- 시세 - 33억원 / 매매 - 27억 (일시불 조정가)
- 계획관리지역 / 개발호재 많음
- 단기투자 최고지역!
- 전원주택 오토캠핑장 펜션 가든 온천 호텔 등등 모든업종 가능
- 개발 후 70억 이상 가치 있음
- 소유자 H. 010-3627-8282